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찬53/새9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수명 장로 2부/김인규 집사 3부/김인권 장로 4부/이중원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영혼이 은총 입어(작곡 한지현)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14:22-3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6:30-44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Taekwon Kim 김태권 목사
물 위를 걷는 믿음?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8) 예수로 배부르기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는 믿네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Taekwon Kim 김태권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46년의 세월(2) - 베델 선교대회를 개최하며

46 Years of Time (2) - As We Begin Bethel Mission Conferenc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어느새 교회를 설립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찬양곡 가사에도 있듯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면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베델교회가 걸어온 지난 46년은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의 세월이었습니다. 약 반세기 전, 알바인에 불어왔던 부흥의 열매로 베델교회가 탄생한 이후, 특별히 선교에 열심이던 C&MA 교단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46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교인 번호 100번 아래이신 과테말라 선교사 유한성 목사님은, 평신도에서 부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하시며 베델의 역사와 함께하신 분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세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엡 5:16) 돈을 아껴 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세월은 어떻게 아껴 쓸 수 있을까요? 돈은 쥐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간의 활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또 누구는 악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남을 격려하고, 교회에 덕을 쌓으며, 선한 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데 사용하지만, 누구는 똑같은 시간을 남을 깎아내리고, 교회를 허물고, 죄를 도모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마흔여섯 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지난 46년 세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활용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베델 선교대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세월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셨는지를 한눈에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로 하나님이 반세기 가까이 사용하신 베델교회는 이제, 중년에 걸맞은 모습으로 선교의 가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할 성숙의 시기라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가치를 위해 더 충성스럽게 쓰임 받는 교회로서, 이민교회의 좋은 모델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비전을 품습니다. 부디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한 조지아에서의 힘찬 발돋움에 베델의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 세계 방방곡곡 사명의 현장으로 뻗어나가, 그 부흥의 열기를 가지고 알바인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It has been 46 years since our church was founded. Like the hymn says, “When I think of the life passed, my life is all because of His grace~”. 46 years of journey for our church has been clearly a journey of His grace and love. Bethel church was born as a fruit of spiritual revival that swept Irvine about half a century ago. After joining the C&MA denomination that has special passion for mission work, we have been running the race for the last 46 years. Guatemala missionary, Pastor Yoo Han Sung, has a church member registration number that is below 100. He was a lay person back then. He became a pastor, and then a missionary. As a person who has been with the church through its history, he tearfully confesses that it was all because of God’s grace.

Bible tells us to redeem the time (Eph 5:16). I would understand if it said to save money. But time passes even when we are standing still. How do you make the best use of time? You can hold on to money, but you cannot hold on to time. It’s talking about utilization of our time. Some could use time to share the gospel. Some could use to gossip. Some will spend time to encourage others and bless the church. Some will use for good works, while some uses to bring down others. Some will use to tear down church and to promote sin. Redeeming our time means to use the time to please God and for works that are beneficial. On this 46th birthday of our church, we thank God that the past has been Kronos time that was generously spent for works that pleased God. This year’s Bethel Mission Conference will provide time when we can see with thanks and praises in one swoop how God has used us in the past.

God used Bethel church as a diaspora church through the past half a century. Now with church at middle age and a more mature state, it is time for us to raise the stakes even higher for missions. We thank God for growth of our church and the ability to hold the mission conference. Now we have a vision, as a model immigrant church, to be used loyally for the gospel, and to take on the calling of mission to even greater level. From Georgia, with all of the Bethel missionaries gathered, we take a great stride toward the next half century to rise up and spread out to all parts of the world. I pray that we will return to Irvine with greater passion for revival.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태권 목사

물 위를 걷는 믿음?

마태복음 14:22-33

적용하기



교회학교-큐티인 셈머 챌린지

나의 예수님~ 최고시!조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가장 귀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정은 교회학교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역시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곁으로 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 여름 온 가족이 함께 한 QT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쓰고 색칠을 하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나가며 주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열심 끝에 오는 칭찬과 자그마한 선물들 또한 아이들이 성경 속 이야기를 더욱 더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먼저 QT를 준비할 정도였으니까요. 특별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번역본을 준비해주시는 덕분에 QT는 저희 가정의 하루 습관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QT를 지속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런 귀한 경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애나 집사(학부모)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나와 늘 함께하시는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큐티인

을 하면서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 따라 적용하기"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내가 적용할 것들을 떠올리며 말씀을 의지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기도와 큐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Hael Kim(5학년)



I like QTin because it's easy to read and listen to God's world. He always answers my prayers. Do read it together with God.

Ricky Kim(소망부)



QT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리더로 세우시고 구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하신 멋진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공부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침착해지고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과 함께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Shinwoo Kong(5학년)



8월의 QTin은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우상이 생기기 얼마나 쉬운지 알았고 그래서 말씀 공부 QTin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손이 가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가 먼저 QTin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 QTin을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하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학교를 옮기기 싫다고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계명을 제게 가르쳐 주셔서 그 계명을 따르게 하시고 저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매일 큐티로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Olivia Lee(3학년)



처음 QTin을 시작할 때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쉬고 놀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QTin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저도 큐

티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제가 느낀 점을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니깐 더 이해가 잘되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족 모두 함께 QTin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해요!

Justin Yang(4학년)

교육부 - BYM 여름 수련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석했던 어떤 다른 많은 수련회보다 이번 여름 BYM 수련회는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수련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동을 받기 원했고 다녀와서는 새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만나,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수련회에서 했던 게임과 특별활동 시간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던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Paster Albert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한번 아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해 나가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hine Kim(9학년)



하나님 아버지께 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어떻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3가지 영역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삶,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삶,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저의 삶은 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삶이고 나만 아는 삶 안에는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삶은 주님과 저만 알고 있는 삶입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때 정말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과의 문을 닫고 지었던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고 저 자신에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주님만 아는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Micah We(10학년)

수련회 직전에 다녀왔던 멕시코 선교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만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참석했던 2번째 수련회였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 목사님의 돌아온 탕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저 자신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었고 그의 형인 큰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기적이며 현명하지도 않은 제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배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3박 4일간의 수련회 기간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게임도 함께하면서 매시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에서 깨달았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 서서 주위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련회가 3박 4일로 끝난다는 것이 몹시 아쉬웠지만 이처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수련회에서 내려오는 아침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큰소리로 했는지 그렇게 잠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저의 삶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안 계속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찬양할 것입니다. 저희 BYM 친구들도 모두 너무나도 귀한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David Bang(7학년)

46주년 특집

4대가 베델 가족이죠

올해 90세이신 저희 어머니는 LA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5년 전에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베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인이신 계모에게 큰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한참 떠나 계셨지만, 딸인 저만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보내기를 고



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셔서 다시 믿음을 찾으셨고 특히 베델의 MIT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믿음만 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혼자서 가끔 교회 출석을 하면서 아이들이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교회를 탐방하다 베델교회를 찾

았습니다. 그게 벌써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온 첫날, 그날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는 궁금증으로 교육부에 기웃거리다 선생님이 부족하다시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전도사님 권유에 시작한 교사 생활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영어 성경 공부와 기도로 아직도 저를 트레이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눌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을 헤쳐 나아갈 수 있

다는 소망 붙들고 아직도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아들과 딸은 베델교회를 마치 집처럼 여기며 교회학교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이쁜 손녀딸까지 베델 교회를 나오고, 나는 한번도 못가본 담임목사 사무실을 매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몇 안 되는 베델교회의 4대라는 것이 아쉽지만, 참 의미 있고 기쁩니다. 아침 이른 시간 아들과 같이 예배와 봉사를 위해 한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 본당 의자가 모자라도록 같이 앉아서 예배 볼 때 그 뿌듯한 마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2세대들이 1세를 위해 기도하고 3세대들이 모든 교실을 채우며 믿음의 친구들과 세상의 Leader가 되기를...

김일란 권사

베델 선교-베트남

나의 또 다른 아지트(?)



저에게 선교는 힐링 타임입니다.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 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베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만에 떠나는 선교인데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첫 해외 선교라 어느 정도 낯설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첫 출국이라 준비할 서류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며 저희가 쓰임을 받을 선교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컸습니다. 이번 선교지인 베트남은 저희에게 처음이었

지만 아시아라 그런지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덜 낯설고 길거리 의자에 앉아 노란 천을 두르고 머리를 짊는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신호등이 있어도 자유로운 오토바이와 차량의 주행도 우리의 옛 모습 같아 절로 웃음 지어졌습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에서는 AWANA로 섬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 만나도 맑고 즐겁습니다. 제 어릴 적 교회학교 선생님을 기억했습니다. 영적 씨를 뿌리는 수고를 기쁨과 열정으로 하였던 그분들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의 삶에서도 한 번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었던 사람

들과 즐거웠던 기억이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전해주고 와야 할 것만 같은데 돌아올 때는 받은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며든다는 표현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서로 은혜로 스며들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두 아이의 첫 선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하는 딸과 날씨가 음식 등에도 불평하지 않으며 찬양하는 아들의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축복의 걸음이 거기서도 여기서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함께한 베델의 베트남 선교팀을 주일 교회에서 만나면 마치 큰일을 함께 겪은 동지들같이 유난히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며 은혜로 감싸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승현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헹시바: 손용주 목사

예상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상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하반기 셀목자
정기모임

지역광고

가을 새가족
환영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에, 내 가족처럼 옆에서 함께
돕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셀모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김한요 목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이 험난한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
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혼자 아니라, '작
은 우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셀모임입니다. 셀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 주일이 더욱 기다려지고 한 주간 삶
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
두 셀모임으로 Go Deeper, Go Higher!!! - 박경철 목사

더 건강한 셀모임을 위한 셀목자 정기 모임을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 헹시바 기도회 후에 갖습니다. 모든
셀 목자님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장소: 9월 17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
▶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7일(토) 오후 5시에 유년부
(2-3학년)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녀분들과 꼭 함께 참석하
셔서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잊지 못
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영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진의 사역 소개와 사역 장로 소개
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새가족 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최상의 음식을 천상의 온화한 분위기로 멋지게 장식한
곳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새가족 여러분들이 베
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예
배를 통해 이만 생활의 공허함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신
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모두 만나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일시: 9월 17일 (토) 오후 5시
▶ 장소: 유년부 채플
▶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10월)	9/18:	①부-김진환	②부-김교식	③부-김언조	④부-이신경
	9/25:	①부-김응진	②부-김정태	③부-김수열	④부-이재주
	10/2:	①부-김재훈	②부-김종곤	③부-김종현	④부-전영석

헹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 | 9/17: 손상현 9/24: 손석환 10/1: 손성모 10/8: 안성희

강단꽃(9,10월) | 9/11: 김홍식, 정배호 9/18: 김인권, 손서영, 이강훈, 조혜성 9/25: 서예나, 서덕령, 김정연 10/2: 양하람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내과), 간호사-이정하

다음주 | 의사-장미순(한외과), 간호사-강지원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령(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태권 목사님께 (PCA 교단 MNA 코칭 디렉터, 필라 임마누엘교회 은퇴목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반기 셀목자 정기모임** 9월 17일(토) 오전 7시 30분에 본당에서 하반기 셀목자 정기모임이 시작 됩니다. 베델의 셀목자님들께서는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베델과 함께 세워져가는 셀목자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주차 안내** 교회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BGC 영어권 예배 전용으로 사용되니, 비전주차장이나 교회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사 자재 적재로 소방부 주차장 사용이 힘든 가운데, 비전센터 강쪽 라인은 소방부에게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 **수요 예배** 9월 21일(수)부터 4주간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네개" 시즌 2로 담임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십니다. 함께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으로 나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돌아오는 수요일은 김홍식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 **청지기 재정교실(제자훈련 2단계)**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청지기 재정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등록 기간 및 신청 방법: 9월 11일(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www.bkc.org)

훈련 기간 및 시간: 10월 첫 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00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모시고, 베델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17일(토) 오후 5시, 유년부 예배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교회학교 캔디드라이브** 9/18(주일)부터 매주 주일 10월 31일(월)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 캔디를 드랍해주시면 됩니다. 캔디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포장지나 땅콩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오픈하우스** 새학기를 맞아 교회학교에서 오픈하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각 부서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일정: 9월 11일-유아부와 유년부, 9월 18일-초등부, 9월 25일 - K-1

◆ **9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9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CIM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 (2,3부 교사 & TA), CIM(한어 중고등부) 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BYM 중등부 금요 훈련 프로그램** "Sports & Discipleship I - The Life of King David"으로 모입니다. 저녁식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운동으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싸인업은 BYM 중등부 팀장이나 담당 전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9월 1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8시 30분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현호승 전도사 (949)677-4911

◆ **소망부 가을 학기 토요학교 개강 및 교사 모집** 베델교회 소망부 지체들을 위한 토요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으로 봉사해 주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일시: 9월 10일(토)-12월 10일(토), 12주간,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조이채플

문의: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베델 한국학교 2022 가을학기 성인반(온라인)** 10주 동안 진행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읽기, 쓰기 and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시/대상: 9월 14일-11월 16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9학년 이상의 성인

등록 방법/등록 기간: 온라인 등록 school.bkc.org, 9월 13일까지

등록비: \$200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식수 위치 안내** 실내카페 자판기 옆과 유년부실 입구 쪽(구, 식수대)에 식수가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베델선교대회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9월 8일-14일까지 "Go together! 함께 가는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베델의 선교 10년을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봉사자들이 참가 중인데,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해 주세요

서성진/김민지 성도 가정에 딸 Lani가 8월 26일(금)에 태어났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Faith Walking on the Water? Matthew 14:22–23

Apply to Life

